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19년 9월

휴먼러니게임

참가안내

[인권] 고민하는 사람이

★ 어린이의 일상에서 찾은 인권에 대한 질문과 토론

[역사] 역사 속의 재판들

★ 잊혀서는 안 될 재판을 현실로 소환하다

[철학] 청소년, 권력을 마주하다

★ 권력은 어떻게 폭력을 낳았는가?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19년 9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인권 20만원(10강), 중등부 역사 20만원(10강), 고등부 권력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초·중등부는 11월 마지막 주(24일)까지 강의 예정이며 기간 중 총 3주의 휴강이 있습니다. 고등부는 10월 6일까지 강의 예정이며 기간 중 총 1주의 휴강이 있습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인권 초등

고민하는 사람이(10강)

★ 어린이의 일상에서 찾은 인권에 대한 질문과 토론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9월 1일~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학교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뜻의 "인권". 하지만 아직 이 단어가 낯설게만 여겨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린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자신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지켜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 질문에 대해 ‘예’보다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어린이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 우리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각자가 보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인권에 대한 질문들로 이번에도 신나게 수다를 떨어봐요. 질문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지만, 찾아내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전에는 몰랐던 "자유"를 만나게 될 거예요.

.....

1강_ 이유 있는 차별

세상에 차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없거나, 차별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나에게 돌아오는 차별은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곤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등장한 새 담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차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자신의 행동에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네요. 그렇다면 세상에는 차별받을만한 아이도 존재하는 걸까요?

2강_ 요즘 어린 것들은

‘요즘 어린 것들은 쫓쫓...’이라거나 ‘어린 애가 버릇없이...’하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난 예의 바른 어린이라서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아, 그렇다면 혹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당해본 적은 없나요? 난 잘못된 게 없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어른에 대한 예의는 꼭 지켜야 해서 여러분이 꼭 참아야 하는 거랍니다~ 아니라고요? 이런 요즘 어린 것들은...!!

3강_ 자람이의 사생활

어른들은 우리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일기장을 검사하기도 하고,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어보거나, 여러분이 없을 때 책상을 뒤져보기도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가끔 항의도 해보지만, 어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말하곤 하죠. 어때요? 솔직히 조금 너무하기는 하지만 어린 여러분을 위한 당연한 관심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일까요?

4강_ 텅 빈 놀이터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여러분 중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른들도 곧잘 따라 흥얼거리는 이 노래의 매력은 놀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놀 시간도 없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는 우리. 하나 남은 즐거움인 게임마저 맘껏 하지도 못해요ㅠㅠ. 이제 참지 말고 어른들에게 속 시원히 소리쳐 볼까요? 우리에게 놀 권리, 게임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5강_ 이상한 학급회의

제 ○회 학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경례~! “너무 청소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더 열심히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떠드는 사람은 교실 뒤로 나가서 서 있기로 합시다.” 아니 대체 이 학급회의는 누가 하는 걸까요? 대체 누가 진짜로 청소를 하고 싶은 걸까요? 혹시 학생으로 분장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6강_ 고릴라 이야기

아이린, 뷁, 차은우, 쯔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들 예쁘다,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왜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분명 가족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TV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전부가 아니고 외모지상주의는 나쁜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쁜 애들이 더 사랑받는 것 같은 기분은 내 착각인 걸까요?

7강_ 너 여자 맞아?

봄 기분을 내느라 산뜻하게 슷컷을 하고 온 날 지나가는 할머니가 “아이고 너 여자애냐 남자애냐.”라고 웃으시는가 하면, 바느질을 꼼꼼히 하는 남자애에게 “남자답지 않게 이런 걸 다 잘하네~” 하는 칭찬(?)이 들려옵니다. 이런 말은 여자와 남자에게 어울리는 일과 행동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와는 잘 어울릴까요?

8강_ 장애 만드는 세상

교실에서 많이 들리는 욕 중에 “장애인”이라는 욕이 있어요. “특수반”이라고 이름 붙은 교실에 가 수업을 듣다가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은 늘 장애가 있는 친구를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장애인”을 욕으로 쓰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혹시 장애인은 도움을 요청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9강_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

어른들이야 애들은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지만 애들의 세상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우리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피시방에 가도 돈, 핫초코 한 잔 마셔도 돈,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먹어도 돈이 필요한걸요. 우리 집에 어느 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내가 사실 부잣집의 잃어버린 아이라고 말하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다가요! 앗, 그런데 반대로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집에서 나를 찾아온다면 어떡하죠? 그 집에 도착한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10강_ 빵점이 뭐가 나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랑 웃고 떠들던 내 친구가 갑자기 미워 보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뭘 할지, 뭘 먹을지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던 친구가 시험지 답을 맞춰보는 순간 적이 되었습니다.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잔소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어떤 기쁨이라도 나누고 싶은데, 점수를 확인할 때만큼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니면 시험을 잘 보지 못한 내가 나쁜 걸까요. 내 친구와 함께 행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역사 중등

역사 속의 재판들(10강)

★ 잊혀서는 안 될 재판을 현실로 소환하다!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9월 1일~11월 24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통해 죄인이 된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처벌을 받거나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재판들은 모두가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죄인으로 판결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었을까요? 예전의 재판 결과를 무효로 돌리는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그럼 역사 속의 판결을 어떻게 모두 믿을 수 있을까요.

가상의 재판정으로 역사 속 재판을 소환해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사건기록과 증거를 모아, 냉철하고 명석하며 편견에 좌우되지 않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유죄나 무죄냐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결에 따라 역사의 큰 줄기가 그리고 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

파트1 : 법은 누구의 편일까? 약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역사적 순간들

1강_ 동물들, 인간의 법정에 서다 : 동물재판

1522년 프랑스에서는 그 지역의 보리 수확물을 멋대로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쥐가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쏘아 죽인 벌들의 등지에 관한 재판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물에게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 동물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거나 할까요. 여러분이 혹시 변호사라면 이 의뢰를 받아들이실 건가요? 얼핏 보면 너무나 황당한 역사 속 동물들의 재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강_ 연극 같은, 너무나 연극 같은 : 소크라테스의 죽음

기원전 399년에 열린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아시나요. 당시 소크라테스는 "신들과 우리 도시국가를 믿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악마의 존재를 끌어들이는 죄를 지었다. 그는 그밖에도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죄를 지었다. 그 벌로 사형을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핏 이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억지에 가까워 보이는 이 판결문을 보면 역시 소크라테스를 죽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이 재판의 이면에는 두 가지 거대한 체제의 충돌이 존재했답니다. 소크라테스 재판의 진실을 다시금 파헤쳐 봅시다!

3강_ 성녀인가, 마녀인가? : 화형대의 잔 다르크

유관순 열사를 한국의 잔 다르크라고 평가할 정도로 잔 다르크는 한국에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한 가장 앞에서 용감하게 전쟁을 이끌고도 결국 화형을 당해야만 했던 비극의 여인으로 기억되기도 하죠.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이 어린 소녀 한 명이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걸까요? 잔 다르크 재판을 통해 그녀의 역사적 진실에 한발 다가섭니다.

4강_ 신이시여, 왕을 구하소서 : 루이 16세

중세 말 유럽학교의 야자시간. 제임스는 튀는 데 성공하고 루이는 담임한테 걸렸는데... 이번엔 프랑스 혁명기의 재판정으로 갑니다. 구체제의 상징이자 당시 민중의 적이라 불리는 루이 16세는 과연 처형당해야 마땅한 것일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재판에 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세기의 재판과 비슷한 일이 한국 사회에서도 벌어진 적이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루이 16세 재판에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5강_ 살인 기계로 전락한 시민들의 변명 - 아우슈비츠 재판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의 학살. 당시 살인기계로 전락했던 독일 시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시켜서 한 것도 잘못인가요? 저는 충실하게 저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재판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 시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른바 <세기의 대결 - 인간이 잔인한가! vs 역사가 잔인한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파트2 : 차별에 대한 심판, 차별을 만든 심판

6강_ 죽어야 사는 여자 :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고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경악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흔히 ‘명예살인’으로 불리는데, 연간 약 5,000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아주 먼 나라, 아주 먼 옛날의 일일 뿐일까요? 실제로 일어났던 재판을 통해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도 못한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읽어내고, 그 대안을 고민해 봅니다.

7강_ 채털리 부인의 연인 : 외설이나 예술이나

1928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출판사에서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소설이 출판됩니다. 성에 대한 거침없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 작품은 이후 여러 해적판이 출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사회의 도덕을 망쳤다면 인기만큼이나 큰 비난을 받아야 했고, 1930년 그가 폐결핵으로 죽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작품은 금서로 낙인찍힌 채 법정 공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외설과 예술, 표현의 자유와 한 사회의 도덕. 어디까지가 외설이고 예술인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는 사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판 ‘채털리 부인의 연인’ 재판을 지금 열어봅니다.

8강_ 내가 왜 일어나야 하나요? :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

로사 파크스란 이름의 여성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녀가 탄 버스에 탑승객이 늘어나자 버스 기사는 그녀를 비롯한 몇 사람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여성이 버스 기사의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이 그녀를 잡아갔습니다. 어째서? 그 여성은 흑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차별이 되고 재판의 과정이 그 차별의 편에 선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불행한 역사가 과거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9강_ 자본의 법정에 선 노동자 : 헤이마켓 사건

1886년 5월 1일, 하루 12시간~16시간의 중노동에 박봉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할 권리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향한 노동자들의 싸움에 정부는 무력진압으로 응수했고 시위자 수백명과 시위 지도부 7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4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2019년, 누군가는 지금의 노동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냐고도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129년 전 노동자들의 싸움은 오늘날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지금의 법은 그리고 재판은 과연 노동자라는 약자의 편에 서 있을까요?

10강_ 총을 들지 않은 사람들 : 전쟁에 반대했던 이라크 참전군인들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제1원칙은 바로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며 이는 어느 나라 군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인의 사명을 거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미국에서는 조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며 부대를 탈영한 병사가 여럿 생겨났고 심지어 다음 해 3월에는 같은 이유로 전쟁터에 가지 않기 위해 친척에게 다리를 총으로 쏘달라고 부탁한 병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군인에겐 생명과도 같은 조국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그들의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한 번 들어볼까요?■

철학 고등

청소년, 권력을 마주하다

★ 권력은 어떻게 폭력을 낳았는가?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9월 1일~10월 6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우정이나 사랑? 아니면 경쟁? 아마 “권력”이라는 두 글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권력과 의 싸움은 일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청소년들을 대 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꼰대’라는 이름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꼰대 기질과 거리를 두고 청소년들과 친구처럼 지낼라치면 어김없이 따갑게 내리꽂히는 어른들의 권력 어린 시선이라든지, 누구 하나를 더 찌질하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청소년 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라든지... 주변엔 하나같이 권력을 증오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 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미묘한 권력 관계들로 얽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작은 권력들이 왕이나 귀족들의 절대적인 권력에 비할 바는 아 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흑자는 그래서, 잘게 쪼개져서 나도 한 움큼 정도는 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힘의 조각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다의 인문학 강좌를 찾는 누군가는 보석처럼 빛나는 지성을 기대할지도 모릅니 다. 권력에 대해 다룬다고 하면 니체나 푸코처럼 권력을 설명하려고 했던 매력적인 사상가들과 의 만남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nada에서 나누는 그저 그런 이야기 속에 (그 속에 그대의 워너비 지성들이 그득하다고 해도) 담고 싶은 것은 내 옆 사람과 그 옆 사람,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포함한 세계에 대한 빼곡한 이해입니다. 나의 빛나는 지성이 주변 사람들을 눈부시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순위를 매기는 것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제도 교육의 공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이에 대한 거리두기를 위하여 권력을 탐구해 봅시다.

.....

1강_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독재를 그리워하다

교과서에도 실린 소설 속의 상징적 인물 ‘엄석대’를 과거의 어느 위대한 독재자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현대사의 상징적 인물이 되살아나 다시 독재를 꿈꾸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독재자가 퇴장한 소설의 엔딩,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해봅시다. 반 아이들은 어쩌면 일그러진 영웅이 사라진 후에도 그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아주 불가능한 추측은 아닐 것 같습니다.

2강_ 파리대왕 : 야만에 대한 공포

서구 문명이 발견한 오지의 인간들은 인간보다 동물을 더 닮아있어서인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서구의 문명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웬 시대착오적인 내레이션이냐고요?

야만인들은 오지를 떠나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 따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너무나 잔인한 생태를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이성의 빛이, 문명의 빛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야만종족의 이름은 ‘청소년’입니다.

3강_ 1984 : 빅브라더, 언제나 내 마음속에

1948년 소설가 조지 오웰은 1984년의 미래를 엄격하게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로 예언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미래는 이미 30년 전의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 우리는 조지 오웰의 예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걸까요?

혹시 당신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악몽을 꾸 경험에 있습니까? 현실에선 차마 하지 못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잠에서 깨어 웬지 모를 자책(또는 쾌감)에 젖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꿈들을 매일 밤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무의식마저도 감시당하는 초(超) 전체주의 사회에 살게 될 거라고, 조지 오웰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4강_ 완장 :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전 학교에는 선도부 활동을 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선도부’라는 글씨가 적힌 간지 나는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기도 했죠. 완장을 차고 교문 앞에 서 있을 때

면 엄청난 포스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주로 머리카락이나 교복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 자신들은 그 규정에서 살짝 더 자유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규정에서 한참 벗어나도 그냥 지나가라는 여유로운 손짓을 보내기도 했죠. 지금 선도부는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완장의 힘은 눈에 보이지는 않게 아직도 우리 옆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아부성 멘트를 날려볼까요? “완장 풀라 멋져요. 개목걸이 같아요.”

5강_ 돼지의 왕 : 개와 돼지에 관한 진실

보통 개와 돼지는 한데 묶여서 ‘개돼지’라고 쓰일 때가 많습니다. 못난 사람을 빗대어서 개돼지 같다거나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한 애니메이션에서는 청소년을 개돼지가 아닌 개와 돼지로 구분합니다. 청소년은 개와 돼지처럼 엄연히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구별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개일까요 돼지일까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양을 대충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면, 당신의 정체를 알아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9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